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보도자료			
	보도	2023. 12. 14.(목)	배포일	2023. 12. 13.(수)
담당부서	금융정책실	실 장 박미애 (051-631-0291) 매니저 최승재 (051-631-0285)		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「외국 금융기관 CEO 초청 세미나」 개최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는 12월 14 ~ 15일 양일간 부산국제금융센터 (이하 BIFC)에서 부산광역시, (주)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와 공동으로 「외국 금융기관 CEO 초청 세미나」를 개최하였음
-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험/재보험 시장*에 대한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고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 - * 2022년 기준, 전 세계 재보험시장의 규모는 약 558.09억 달러로 추산되며, 2026년까지 약 812.37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(출처 : Gallagher Re(2022))
- 특히, 지난 11월 (주)유아이비손해보험중개와 라이나원 등 2개의 외국계 보험사가 BIFC 63층 공간에 입주한 상황에서 후속연계로 글로벌 보험 시장에 부산을 널리 알리고 인슈어테크(InsureTech)*를 포함한 보험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 - * 인슈어테크(InsureTech) : 보험(insurance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. 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(AI) 등의 정보기술(IT)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
- 이번 행사는 세계적 재보험사인 독일의 미그리 리(Munich Re), 베트남의 주요 보험사인 하노이리(Hanoi Re) 및 피브이아이 인슈어런스(PVI Insurance), 영국 유아이비그룹(UIB Group)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유아이비 싱가포르(UIB Singapore) 대표단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, BNK 부산은행, DB손해보험, (주)넥솔 (ESG 인슈어테크 스타트업) 등 국내외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
- 행사 첫날에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‘부산시 및 부산금융중심지 소개’라는

주제의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보험/재보험 시장 및 세계 보험시장 소개, 보험중개사의 역할 및 부산시 연계 비즈니스 모델, 베트남 보험시장 소개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음

- 둘째날에는 독일 보험시장 소개,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 투자설명회(IR) 등으로 진행되었으며,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금융회사 대표단들은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신항 홍보관 등 부산의 역점산업을 둘러보는 산업시찰도 진행되었음

- 이명호 원장은 “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하였음

※ 행사 자료는 행사 종료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.